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향하라

(민30:1~16)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향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향하라'
서원에 대해서 즉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향한다.'는 것과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치과의사의 꿈을 갖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꿈을 위해서 살지만 지금은 마음이 공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지금은 음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함과 향함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따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치과의사의 꿈을 위하여 지금은 공부를 향하고 있는데, 결국 향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면 구분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향해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함과 음식을 향함이 앞의 이야기들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위함과 향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딸은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음식을 시켜먹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엄마, 엄마 하면서 재잘거리면서 한 마디로 엄마를 향해있습니다. 밥을 시켜 먹자고 하니 친정엄마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딸이 해야 될 일을 친정엄마가 딸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딸은 계속 친정엄마를 향해 재잘대며 향하고 있을 뿐인데 친정엄마가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거나 빨래를 하거나 음식을 합니다. 이 경우는 위함과 향함의 구분이 가고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은 앞서 본 레위기나 민수기 6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말이어도 앞뒤의 맥락에 따라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강에 서 있어도 이미 내 앞에 흐르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이 흘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도 뉘앙스와 의미가 다른 맥락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을 율법과 비교해보면 율법은 수동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서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행위입니다. 선민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서원이고 서약이고 맹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서원에 대한 가르침들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반복됩니다. 야곱이 루스벌판에서 한 서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라는 맹세를 하고 맹세를 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서원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내리신 결론적인 말씀은 마5: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지 말라'고 결론이 날 것을 왜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겠으면 해보라'는 의미에서 서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28~29장에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제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제사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상번제가 같이 드려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라서 죽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는 것을 서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네가 죽는 것인데 네가 너를 알아야 제사의 의미가 있으므로 너는 서원을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서원을 하는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결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탱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동안에도 내 속의 죄는 단지 억압되어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죄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체질상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뜨거울 때 나타나는 결심조차도 이행해 나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깁니다.
본문에서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니 자발적인 헌신을 하도록 이 본문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율법도 준행하지 못할뿐더러,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는 율법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율법이든지, 자발적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한 율법이든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에 담겨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맹세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각오에서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각오의 단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음식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질 못합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삼상14: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었더라도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억울해하는데 잘못 된 맹세였습니다. 사사기의 입다의 경우에는 삿11:31절에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고 서원을 하는데 34절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맹세를 합니까? 우리의 맹세가 그 순간에는 기분과 분위기에 휩싸이고 감동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실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 벌판에서 한 서원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창28:20~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했는데 벧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벧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요13:37~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 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당성의 문제와 실천 가능성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서약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자 죄인 됨의 의식을 주시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뭘 좀 해야겠다고 달려들 때에 그 갸륵한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한 번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신앙의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본문 2절의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이라는 말씀에서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을 직역해보면 '그의 마음을 맹세로 묶기를 서약하였으면'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두 끼만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는 것을 '마음에 묶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이고 서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하려는 행동이나 이루려고 하는 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꿈을 위해서는 지금은 공부를 향해야만 되는 것처럼, 서원과 맹세의 특징은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친정엄마가 왔을 때에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친정엄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하며 쫓아다니는 딸처럼 향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으셔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그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를 일 좀 하게 하라며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눅10: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음식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대신에 시어머니를 위하여 음식을 하는 며느리의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향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언가를 하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있는 시간은 없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인을 향

하는데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향해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서원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본질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한다.'는 것은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로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롭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해가 되는 것들인데도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서원의 마음가짐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짓는 게 없는 것입니다.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다부지게 생각의 매듭과 계획의 매듭이 지어지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향하고 그냥 헤벌쭉 하고 바라만 봐야하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빌2:12~14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상태입니다. 지금 돈을 바라고 있던 자가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여차하면 다른 것을 향하기 때문인데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산적한 집안일을 거들떠도 안보고 친정엄마를 따라다니며 재잘대는 딸처럼 딸의 일들을 대신하는 친정엄마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헤벌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에서 '소원'은 이 세상일을 다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이때에 돈에 대해 갖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인가를 아느냐에 대해 시37: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회사에 와서도 기쁩니다. 기쁜 이유는 마음이 아

들을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있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있어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내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입니다. 돈, 건강, 승진, 결혼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갖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14: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부단히도 다른 것을 향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서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기보다는 약해서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약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합니까? 감격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마치 여자들의 눈물과 같아요. 여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결정하는 결심을 절대 믿지 마세요. 차라리 평상심의 상태에서 하는 말을 믿을지언정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나 당신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절대 믿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서약을 할 때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취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와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할 때 그 아내와 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휴,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내나 딸의 입장에서는 충만해서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아내와 딸을 늘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정을 사람이 봐도 그러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

접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손을 집어넣는 장갑의 목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데, 서원은 그 목을 닫고서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장갑이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여전히 돈과 건강과 가족의 안위와 승진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앞서 나온 제사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이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서원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죽을 때에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향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성립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느끼실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엄마가 와 있는 동안에 매 순간 친정엄마를 향해서 재잘거리는 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말씀이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재잘거리고 있었더니 나타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의 표현임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마귀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너도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 너도 인격자이고 너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너도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서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갑으로 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세요. 서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바람을 몰랐습니다. 이제 오직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매순간 나의 마음이 관심할 것이 많고 많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장갑이 되는 선민들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